

목포시 시메타버스센터 '청년 취업 인큐베이터' 역할 특특

맞춤형 디지털융합 교육...1기 수료생 대기업 등 100% 취업 지역주민·학생 등 2500여명에 AI·빅데이터 체험·교육 제공

목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육성사업이 빛을 받고 있다.

목포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4차 산업에 최적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해 10월 인공지능(AI)메타버스센터를 개소했다.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이 협력해 옛 목포정호중학교에 문을 연 'AI 메타버스센터'는 지역내 학생,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맞춤형 디지털융합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분석

서비스 개발자 과정 등 2개 분야 3개 교육반을 6개월 과정으로 무료 운영하고 있다. 또 크로마키(Chroma key),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으로 누구나 시 공간에 구애없이 디지털 신기술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시는 이 교육을 통해 매년 100여명의 지역인재를 배출하고 지역주민, 학생, 재직자 등 2500여명에게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분야 특화된 체험 및 교육을 제공 중이다.

교육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3월 수료를 마친 AI메타버스센터 1기 수강생 15명 중 군인대와 학과 과정을 제외한 12명이 취업에 성공해 100% 취업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수료를 마친 2기 수강생 18명 중 6명도 지역 내 기업 프로그램 개발자로 채용을 확정지었다. 수료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진다.

6개월 동안 자기소개서 작성법, 포트폴리오 수정 및 면접 특강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 100%달성을 위해 부족한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시는 지역 청년인재 양성의 요람인 AI메타버스센터를 적극 활용해, 청년 역량 강화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역 청년들의 핵심 역량증진을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교육 등 4차산업 분야에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지역 청년들이 센터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이 협력해 옛 목포정호중학교에 문을 연 'AI 메타버스센터'. <목포시 제공>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이 협력해 옛 목포정호중학교에 문을 연 'AI 메타버스센터'. <목포시 제공>

영암군 보건의료협의체 출범...민·관 소통창구 역할

의사·약사회 등 전 의료계 참여

영암군은 지역 보건의료 분야 민·관 소통창구 역할을 할 '보건의료협의체'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체에서는 지역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으로 발전 등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통창구 부재로 어려웠던 지역 보건의료 쟁점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 의견 청취, 공공 보건의료 정책의 민간 전파·협조 등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지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회와 영암한국병원·영암효요양병원 등이 참여했으며, 위원장에는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이 맡았다. 협의체는 향후 보건의료서비스 발전 업무 발굴, 의료 공백 등 주요 정책사업 협업체계 구축, 보건의료 현안 정보공유 및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날 군청에서 열린 첫 정기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진데 이어 지역



지역 보건의료 분야 민·관 소통창구 역할을 할 '보건의료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 위원들이 위촉장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보건의료 안전 등을 논의했다.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영암군 보건의료 정책이 반영될 계획"이라며 "보건의료협의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영암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실속형 추석 선물로 딱!...땅끝 해남 샤인머스켓 본격 출하

일조량 풍부해 당도 높아

추석을 앞두고 땅끝 해남의 샤인머스켓이 본격 수확되고 있다.

성수기 과일 가격이 치솟고 있으나 샤인머스켓은 전국적인 재배 면적의 증가로 예년과 비슷한 가격에 출하되고 있어 실속있는 명절용 선물로 제격이다.

포도의 일종인 샤인머스켓은 일반적인 캠벨 포도에 비해 당도가 높고,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겹겹째 먹을 수 있다.

달콤한 망고 맛이 나서 망고포도라고도 불리며, 일반 포도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고급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땅끝포도연구회를 비롯해 20농가, 9.1ha 면적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산 샤인머스켓은 풍부한 일조량을 갖춘 최적의 자연환경과 고품질 재배기술을 적용해 높은 당도의 샤인머스켓을 생산해 소비자들의 선호가 매우 높다"면서 "2kg 한상자에 2만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 샤인머스켓 재배 농민이 출하를 앞둔 샤인머스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해양대 국립대학육성사업 평가 A등급

사업비 32% 늘어 사상 최고

목포해양대학교가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 그룹(특수목적대학) 내 유일하게 A등급의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 최고 등급 획득으로 목포해양대학교의 2024년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총액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약 32% 증액됐다.

목포해양대는 증액된 사업비를 포함해 국립대학육성사업 사업비 전액을 해양특성화 교육혁신과 해양인재 양성 및 우수 신입생 유치에 사용할 예정이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자율혁신

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비 총액은 포플러(정량평가) 사업비 40%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60%로 구성된다. 37개 국립대학 전체가 성과평가 대상이며,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대(특수목적대 제외) 및 국가중심대 중 특수목적대와 교원양성대로 구분하여 평가가 이뤄졌다.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은 "앞으로도 아시아 TOP-tier 해양특성화 대학으로서 국내외 해운-해양산업이 요구하는 실용적 전문인재 양성국과 국가 해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해양 인재를 육성하는 국립대학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신안군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메뉴 개발 등 맞춤형 컨설팅

신안군이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홍보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한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은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거리 조성 및 그 지역이 가진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의 고유 음식과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 내용으로는 ▲전문가가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위생·안전 교육 ▲메뉴 개발 ▲위생 물품 지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방식은 업소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사전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안의 명품 남도음식거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신안의 맛과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선 기자 sslee@

달콤한 과즙 팡팡...영암 무화과 축제

9월 6~8일 전남농업박물관 일대 시식회·감쪽경매 등 다양한 행사

무화과의 분향인 영암군에서 9월 6~8일 '2024 영암무화과축제'가 열린다.

영암군은 1917년 한국에서 무화과가 첫 재배된 시메지이고 전국 생산량의 60%를 출하하는 무화과의 보고지이다.

삼호읍문예체육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삼호읍 전남농업박물관과 그 일대에서 진행되는 영암무화과축제 주제는 '달콤한 과즙 팡팡! 익사이팅 영암!'이다.

올해 영암무화과축제는 6일 개막식과 축하쇼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또 무화과 시식회와 무화과 감쪽 경매 이벤트, 무화과 판매관 등을 통해 제철을 맞은 신선하고 달콤한 무화과를 맛보고 구입할 수 있다.

축제 기간 3일 동안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그럼 그거 대해, 무화과 가요제, 영암문화 예술 프린지, 청소년 끼 페스티벌, 풍물패 공연, EDM 파티 등이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물놀이장, 에어바운스, 인공암벽장 등 키즈존이 신설된다.



영암무화과축제 포스터. <영암군 제공>

또 자이언트 무화과 플라워 포토존, 청년 플라마켓·푸드트럭, 농부장터 등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흥읍 삼호읍문예체육위원회장은 "영암무화과축제로 영암 생산자와 전국 소비자를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20만보 걷고 경품 받으세요

완도군 내달 9일부터 챌린지

완도군이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고자 '걸어서 가을 속으로! 20만 보 걷기 챌린지'를 실시한다.

9월 9일부터 30일간이며, 기간 내 20만보 걷기(하루 8천보 인정)를 달성하면 된다.

20만 보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보상 물품(경량 폴딩 백 백)을 지급한다. 참여 방법

은 워크온 앱 설치, 완도군 커뮤니티 '내DO 나DO 건강한 걷기 운동' 가입, 걸어서 가을 속으로! 20만 보 걷기 챌린지 '예약하기' 또는 '참여하기' 선택 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걸으면 된다.

김현주 완도군 건강증진과장은 "혼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위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맛플무안몰' 추석맛이 30% 할인전

9월 20일까지...전 제품 할인

무안군이 추석에 맞아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처 '맛플무안몰'에서 3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황토망고와 청정해 바다가 품어낸 한우, 한돈, 김, 쌀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 선물 세트와 추석 특별판의 전 상품을 9월 20일까지 30% 할인한다.

무안 대표 농산물인 양파, 마늘 제품 구매 시 3000원 할인 쿠폰이 1인당 3매 제공되며 신규회원 2000원 쿠폰, 카카오톡 채널 추가 시 2000원 쿠폰도 추가로 지급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 기획전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 우수한 먹거리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서해해경청, 전기차 화재 대응 TF팀 구성

여객선·도선 해상 화재 예방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전기차 화재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전기차 화재 대응 TF팀은 구조안전·경비·중합상황실·정보·방제과 인원이 포함돼 관련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카페리 여객선 및 도선에서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을 강구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선사 및 선원의 초기 대응이 중

요한 만큼 교육자료를 마련해 유관기관 등에 전파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은 향후 목포해수청, 전남소방본부 등 전기차 화재 관련기관 및 선사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주관하고,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대응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상에서의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